

일제강점기 교과서 개정에 대한 일고찰

— 『教科書編輯彙報』를 중심으로—

민 병 찬* · 박 화 리**

目次

1. 들어가기
2. 교과서의 개정과 사회적 관심
3. 학제의 개편과 교과서의 개정
 - 3.1. 國語科와 『初等國語讀本』의 성격
 - 3.2. 國民科國語
4. 「창씨개명」과 교과서 등장인물의 이름 변경
5. 교과서의 가변 사항
6. 교과서의 수정 사항
7. 마치며

1. 들어가기

본 논문에서는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¹⁾의 발포에 발맞춘 소위 「國語

*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일어일본학전공 조교수, 일본어사

** 인하공업전문대학 관광산업학부 관광과 겸임교수, 일본어학

- 1)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을 기점으로 조선에서는 1938년 지원병제도가 실시되고 이와 함께 조선교육령도 제3차 개정을 보게 된다 그 주된 내용은 총독부 설치의 기본 이유이기도 한 통치의 일환으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에서 한발 더 나아가 「國語」로서의 교육의 충실로 강화 되었으며 이는 전쟁 확대에 따른 언어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배경으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다음 인용문(「朝鮮總督府令第二十四号」小學校規定、第十六條)에서 보듯 황국신민이라는 개념의 도입과 교육 용어의 일본어로의 통일 등을 들 수 있다.

七. 國語ヲ習得センノ其ノ使用ヲ正確ニシテ應用ヲ自在ナラシメテ國語教育ノ徹底ヲ期シ以テ皇國臣民タルノ性格ヲ涵養センコトヲカムベシ

八. 教授用語ノ國語を用ウベシ

一元化」 정책의 진행 과정에서 조선총독부가 교과서 간행을 통한 <교육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한 『教科書編輯彙報』를 중심으로 당시의 언어 및 그 교육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教科書編輯彙報』는 1938년 6월 제1집이 발행된 이래 1942년 3월 제11집이 발행될 때 까지 다음에 인용하는 발간사(第1輯 所収)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조선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편집 및 발간에 있어서의 제반 주의 사항을 기록해둔 문건이다.

발간사2)

앞서 우리 조선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교육령의 발표가 있었고 이제 반도 교육계는 일제히 신 교육령의 정신을 살리는 길에 진지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 먼저 착수해야 할 것은 교과교재의 정선 및 활용으로서 내일의 교육은 그야말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교과서는 아동 교양의 재료에 대한 규범이며 문제해결 능력을 연마하는 소재이며 교사의 활동과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좌우하는 열쇠이다. 따라서 우량 교과서의 간행은 교육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긴급히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는 여러 가지 조건에 간섭을 받아 그 개편이 용

2) [원문] 發刊の辭

曩に我が朝鮮に於ては画期的なる教育令の發布を見、今や半島教育界はあげて新教育令の精神を活かす道に真摯な努力を続けつゝある。而してそれが為には幾多の道もあらうが、第一に着手すべきは教科教材の精選活用にして、明日の教育は当にこゝより始むべきである。

想ふに教科書は兒童教養の資材に対する規範であり、問題解決の能力を練磨する素材であり、教師の活動と相俟つて、教育の効果を左右すべき鍵鑰である。故に優良なる教科書の刊行は、教育の改善向上を図る上に緊要欠くべからざるものである。然しながら教科書は諸種の条件に掣肘せられて、その改版が容易でないために、動めれば文化の進展に取残されがちである。本府に鑑み其の弊を救ふ一方法として、爾今、随時に教科書編輯彙報なるものを発行して

- 一、編纂に関する根本精神を叙述せるもの
- 一、社会文化の進展に伴なつて教材の改正を要すべきもの
- 一、斬新なる教授資料として紹介に値するもの
- 一、写真・絵画・図表等の提示によつて学習指導に興味を与へ得るもの
- 一、其の他教授の参考に資すべきもの

などを輯録して、汎く之を全鮮の小学校に頒布せんとするものである。

されば教師たるものは、此の種の教材が兒童の精神的糧となり、社会活動の原動力となるべきことに深く思をいたし、教材に対する正確なる理解と鞏固なる信念とを持つて兒童の学習指導に一層の研究と工夫とを積み、以て教育効果の向上に尽瘁せられたい。

全鮮の教育者各位、冀はくは本府の待望する皇国臣民造成の大業に懸命の努力を捧げ、叙上の発行の主旨を体して、本彙報を最も有効に活用せられんことを。

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화의 발전에 뒤처지기 쉽다. 조선총독부는 이에 비추어 그 폐해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금후 수시로 교과서편집회보라는 것을 발행하여

1. 편찬에 관한 근본정신을 서술하는 것
1. 사회 문화의 진전에 수반해서 교재의 개정을 요하는 것
1. 참신한 교수 자료로서 소개할 만한 것
1. 사진 그림 도표 등의 제시로 학습 지도에 흥미를 줄 수 있는 것
1. 그밖에 교수에 참고가 될 만한 것

등을 담아 널리 전 조선의 소학교에 반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이런 종류의 교재가 아동의 정신적 식량이 되고 사회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새겨서 교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아동의 학습 지도에 가일층 연구와 고안을 해서 교육효과의 향상에 진력해주시기 바란다.

전 조선의 교육자 각위 바라기는 본 총독부가 바라는 황국신민 조성의 대업에 힘껏 노력을 바쳐 위에 밝힌 발행의 취지를 명심하여 지켜서 본 회보를 가장 유효히 활용해 줄 것을.

위 발행사에도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의 일본어 교육은 「황국신민 조성의 대업」을 완수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 한편으로는 「사회 문화의 진전」 등의 이유에서 교과서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개정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개정에서 있어서의 프로세스나 구체적인 내용을 『教科書編輯彙報』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교과서의 개정 및 수정에 있어서 일본의 국어 정책을 포함한 언어학적 요인이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본 논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다.

2. 교과서의 개정과 사회적 관심

1941년 9월 28일자 『京城日報』 3면에는 「假名遣ひ改めて低学年から漢字／半島の国民学校教科書改革」과 같은 제하의 기사가 보인다. 새로 선보이는 교과서에 있어서의 일본어 표기법 등의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 되는데 일반 신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사화되는 것을 보면 교과서의 개정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정책 홍보를 위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학무국 편집과에서는 내년도부터 사용되는 조선 내 국민학교 1, 2학년용 교과서의 편집을 끝내고 벌써 인쇄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국민학교의 주안점이 훌륭한 황민의 연성에 있다고 하는 정신을 살려서 조선은 조선 독자적인 입장에서 편찬에 임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일본 측에 순응하고 있다고는 해도 세부적으로는 대개혁이 가해져 있다.

개정 주안점으로는 표음(標音)의 전폐를 들 수 있다. 종래에는 2학년까지는 표음을 채용하여 예컨대 蝶는 「チヨウチヨウ」, 朝鮮은 「チヨウセン」, 今日은 「キヨウ」와 같이 되어있었던 것을 내년 신학기부터는 일제히 「テフテフ」 「테페센」 「테프」와 같은 歴史的假名遣로 개정된다, 또한 히라가나 한자의 도입도 2학년부턴으로 되어있던 것을 1학년부턴으로 가리킨다는 식으로 입학 당초에 아동이 갖고 있는 왕성한 지식 흡수력, 기억력을 살리고 또한 면학에 대한 흥미와 희망을 이용하여 청신한 두뇌에 신지식을 척척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다¹⁾.(熊谷(2004;p238))

한편 여기에서는 인용하지 않았지만 위 기사 가운데는 「종래에는 4학년 이상이 내선 모두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3학년부턴으로 1년 앞당겼다(従来は四年以上が内鮮ともに同一の教科書を使用してゐたが、これも三年生からと一年早めてある)」라 하여 교과서 사용에 있어서 일본 현지와 조선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서 사용상의 차이는 『教科書編輯彙報』의 다음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국민교육의 원칙, 내선일체의 이상 실현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동일한 교과서로 통일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재는 아직 교칙이 다른 곳이 있고 비록 교칙은 같더라도 그 문언의 해석이나 적용에는 조선의 특수사정에 의거하여 다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당연하며 아울러 문부성의 교과서에 의거하는 것 이외에 달리 총독부 편찬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교과과

1)[원문] 學務局編輯課では明年度から使用される鮮内国民学校一、二年用教科書の編纂を終り早くも印刷にとりかゝることになつたが、国民学校の主眼が立派な皇民鍊成にあるといふ精神をとり入れて朝鮮は朝鮮独自の立場で編纂に當つてをり大体において内地側に順應してゐるとはいへ細部的には大改革が加へられてゐる。

改正の主眼点としては標音の全廃があげられる。従来は二年生までの教科書には標音を用ひ例へば蝶は「チヨウチヨウ」朝鮮は「チヨウセン」今日は「キヨウ」となつてゐたものを明年新学期からは一斉に「テフテフ」「テフセン」「テフ」といつた、歴史的假名遣ひに改められる、また平假名、漢字の挿入も二年生からとなつてゐたものを一年生から教へ込むといつた工合に、入学当初の児童が持つてゐる旺盛な知識吸収力、記憶力を捉え且つまた勉学に対する興味や希望を利用して清新な頭脳に新知識をどしどし注入しようといふのである。

목의 성질에 따라 여러 연구의 결과 문부성 발행과 본부 발행 교과서의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2). (『国民学校と教科書』 『教科書編輯彙報』 第8輯 (1941.06);p3)

즉 일본과 조선에서 사용하는 교과서의 통일이 요망되나 현실적인 제 문제를 고려하여 사용 교과서에 차이를 둔다는 내용으로서,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써 내선일체가 강조되는 시점에서 교과서 역시 일원화를 목표로 하는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3. 학제의 개편과 교과서의 개정

3.1. 国語科와 『初等国語読本』⁴⁾의 성격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의 발표에 따라 다음 해인 1939년 4월에 『初等国語読本』이 간행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普通学校国語読本』에서 『初等国語読本』으로 개정된 것인데 새로운 독본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⁵⁾

새 독본은 이 독본을 사용할 학교에 있어서의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점을 언어교육에 두고 편찬한 것이다⁶⁾. (『教科書編輯彙報』 第3輯(1939.04);

2)[원문] 国民教育の建前、内鮮一体の理想實現の上からは、一日も早く同一教科書に統一したいと思ふが、併し現在の所では尙教則も異つた所があり、よし教則は同じでも其文言の解釈や適用には、朝鮮の特殊事情に基づいて幾分相異なる所があつて然るべきであり、かたがた文部省の教科書に依拠するの外、別に総督府編纂のものを必要とする。而して教科科目の性質に応じ、種々研究の結果、文部省発行本府発行教科書の使用捌割りを左の如く決定した。

3) 北川(2003)는 조선에서의 국어독본이 점차 「内地型」 독본에 가깝게 개정되어 간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소위 「内地」에서는 表音式仮名遣이가 전혀 채용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1942년 이후 조선에서 초등과 제1학년 모든 교과가 表音式에서 歴史的仮名遣이로 바뀌게 된 사실 역시 「内地型」으로의 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4) 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용 도서 목록을 보면 「併合」 직후 교과용 도서를 普通学校学徒用国語読本이라고 했으며 1911년 제 1차 조선교육령 발표이후 다음과 같이 제1기부터 제5기로 구분 지어 규정했다.

第1期—1912년 이후 1915년까지 간행된 교과용 도서로 普通学校国語読本

第2期—1923년 第2次朝鮮教育令 이후 간행된 교과용 도서로 普通学校国語読本

第3期—1930년 2월 5일 개정 이후, 1931년 1월까지 간행된 교과용 도서로 普通学校国語読本

第4期—1938년 第3次朝鮮教育令 이후 간행된 교과용 도서로 初等国語読本

第5期—1941년 3월 31일 国民学校規程(朝鮮語廃止) 이후 간행된 교과용 도서로 初等国語

5) 보통학교 6학년은 문부성 편찬의 『小學校国語読本』을 사용한다.

6)[원문] 新読本は、この読本を使ふだらう学校における国語教育の特殊性に鑑みて、重きを言語教育において編纂したことである。

p29)

위 인용문을 보는 한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일본어)교육의 특수성⁷⁾을 감안하여 언어교육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인데 언어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는 다음에 보듯 회화교육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1권 2권의 뒤를 이은 3권이다. 근본방침은 물론 중점을 언어교육에 둔 것은 전자와 다름이 없다. 또한 이번 권은 회화교재를 늘리고 또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교재를 채용하여 국어학습을 암시했다⁸⁾.(『教科書編輯彙報』第 5輯(1940.03);p51)

실제로 1940년 5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편 『初等国語讀本』卷3의 2과 「ハヤオキ」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²⁹勇ちゃん、サア オキヨウ。」
ニイサン ノ コエ デ、目 ガ サメマシタ。モウ、ショウジ ガ アカルク ナッテ イマス。

위 교과서 내용 가운데 도입 부분인 동생을 깨우는 말투는 다음에 보이는 1921년 3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편 『普通学校初等国語讀本』卷3의 2과 「アサ」의 말투와 비교해보면 보다 회화체로서의 느낌이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등장인물의 이름에 있어서도 다소의 변화가 엿보인다.

「^{センキチ}千吉、モウ オキ ナサイ。」
マクラモト デ ニイサン ノ 대키나 코에 가 시마시타 노데、ビックリシテ 目ヲ サマシマシタ。

한편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인 아동에 대한 국어(일본어)교육의 특수성이란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언어적 상황을 고

7) 말하자면 모어를 지닌 조선인에 대한 국어(일본어)교육은 식민지 통치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원문] 卷一、二の後をうけた卷三である。根本方針はもとより、重きを言語教育においたことは、前巻かほりない。なほこの巻は、会話教材を多くし、また「国語への関心」を高める教材をとり入れて、国語学習を暗示た。

려한 언급으로도 볼 수 있다.

음성언어가 중시되고 있는 점입니다. 「말하기」와 표리일체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듣기」를 들어 「듣기, 말하기」로 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두드러진 점일 것입니다. 문부성 측에서는 단지 「말하기」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듣기, 말하기」와 같이 「듣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만 이것은 바람직한 국어 교육의 진정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아동의 9 할에 이르는 130만여 조선인 아동에 대한 국어교육을 포함한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깊이 생각한 것으로서 진정 타당한 조치입니다 9). (『教科書編輯彙報』第9輯(1941.06); pp14-15)

또한 이러한 생각은 다음 기사로 이어진다.

조선에 있어서의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종래 교육의 실적에 비추어 중점을 이 음성언어의 교육에 둔 것입니다.(중략)새로운 국민학교의 교칙에서는 교수에 있어서의 주의로서 「발음을 바로잡고 억양에 주의하고 운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初等国語讀本』에서는 교사용에 모든 교재의 표준 악센트를 보이고 모음의 발음법을 설명하여 발음 교육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성언어에 관한 한 『初等国語讀本』은 새로운 교칙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여 편찬하였기 때문에 10)...(『教科書編輯彙報』第9輯(1941.06);p16)

즉 『普通学校国語讀本』에서 『初等国語讀本』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시각화되는 일이 없는 악센트까지 교사용 교재에 표기하거나 일본어의 발음상의 특징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조선인 아동의 말하고 듣는 문제에 대처하려 노력했던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9) [원문] 音声言語が重くとり上げられてゐることであります。「話シ方」と表裏一体の密接な關係にある「聞キ方」をとり上げて「聞キ方・話シ方」としたことは、中でも著しい点であります。文部省方では、単に「話シ方」となっていますが、それを「聞キ方・話シ方」と「聞キ方」を表面にだしたのでありますが、これは、あるべき国語教育の眞実のすがたを示したことは勿論、国民学校児童の九割に上る百三十万余の朝鮮人児童に対する国語教育を含む朝鮮における国語教育の特殊性を深く考へてのことで、まことに當を得た処置であります。
- 10) [원문] 朝鮮における国語教育の特殊性を考慮し、また従來の教育の実績にかんがみて、おもきをこの音声言語の教育においたのであります。(中略)新しい国民学校の教則では、教授上の注意として、「発音ヲ正シ抑揚ニ注意シ云々」とありますが、『初等国語讀本』では教師用に全教材の標準アクセントを示し、母音の発音法を説明して、発音教授に基礎を与えることに力めてゐるのであります。でありますから音声言語に関するかぎり『初等国語讀本』は新教則の精神を十分くみとって編纂してゐるので...

3.2. 国民科国語

일본에서도 역시 초등교육사에 있어서의 중요 변혁으로 일컬어지는 1941년 국민학교 제도의 실시는 그대로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먼저 조선교육령의 개정, 1886년 제정된 소학교령의 국민교육령으로의 전환, 소학교 규정 폐지와 새로운 국민학교 규정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러한 학제의 변화에 따라 국민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용 도서도 새롭게 편찬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内地」와 조선에서 사용할 교과서의 통일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제안으로 일부 다른 교과서의 채택이 결정되었다. 또한 종전에 ‘国語科’였던 것이 ‘国民科’속의 하나의 과목으로 되어 ‘国民科国語’로 바뀌었으며 교과는 「修身」「国語」「国史」「地理」 4개 과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国民学校規定 第五条」에 명시된 「일상 알아야 할 국어를 습득시키고 그 이해력과 발표력을 키우며 국민적 사고 감동을 통해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것으로 한다(日常須知ノ国語ヲ習得セシメ、其ノ理会力ヲ発表力ヲ養ヒ、国民的思考感動ヲ通ジテ国民精神ヲ涵養スルモトス)」와 같은 기사를 보면 ‘国民科国語’의 목적이 한 층 더 실천적인 일본어 교육 쪽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다음에 인용하는 취급상의 주의를 보면 기존의 「읽기」 중시에서¹¹⁾ 음성언어의 습득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 전환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언어의 취급에 관련해서 음성언어를 중시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학교 교칙의 하나의 특징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음성언어를 중시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1939년 3월 본 총독부 편찬의 초등국어독본 1권 교사용에 있어서 그 중시해야 할 이유를 밝히고 발성법을 제시하고 문장에 악센트를

11) 기존의 読み方 중시 교육에 관해서는 여러 예를 찾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1938년 발행된 『教科書編輯彙報』第1輯의 14항에 실린 교사용 「趣意書」의 중요성 및 그 활용 방법에 대한 기술을 들어보기로 한다. 그 내용은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趣意書」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세심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教材研究をする時、常に趣意書をひもとくことを怠らないならば、文字のよみをあやまつたり、主眼を逸したりするやうな、あやまつた指導をすることはなくなるだらうと思ひます。(中略)この趣意書によれば、たとへば卷三の「五 小川」の「小川」や、卷五の「一 私どもの面」中の「小川」や、卷七「第十五 鴨緑江」中の「小川」を「オガワ」と読ませるやうなことはなからうし、卷十一の「第七課 無言の行」の中の「末席」や「上座」のよみに迷ふこともあるまいと思ひます。

붙이고 있다.(중략) 일반 학습의 기초가 되는 말하기 듣기가 모든 학년을 통해 행해지게끔 정해진 것은 이번 교칙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이다¹²⁾.(『教科書編輯彙報』第8輯(1941.03);p32)

위와 같이 말하기·듣기 중시 수업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국어과의 특징 속에서 국민학교의 독본으로 사용된 『初等國語讀本』卷五의 개정요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는 종래의 지나친 내용중시주의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조선에서의 문법이나 문장의 지도가 부족함을 지적함과 더불어 특히 문자와 음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어법상의 문제를 고려해서 편찬하였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세상의 국어교육이 내용주의에 화를 입었는지 문장의 지도 그 가운데서도 문법적 지도가 소홀히 되어 있다. 이 어법 예컨대 조사의 학습이 특히 조선인 아동에게 곤란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의 국어표현에 —문자에 의한 것에도 음성에 의한 것에도 — 어법상 오류가 지나치게 많다. 여기에 착안하여 『初等國語讀本』에서는 어법의 지도를 문제 삼은 것이다¹³⁾.(『教科書編輯彙報』第8輯(1941.06); p95)

아무튼 모어가 아닌 일본어를 국어로서 교수 받는 조선인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달리 표현하면 모어인 조선어의 간섭을 받는 학습자에 대한 일본어 교육상의 방향 전환이 다른 아닌 제도의 변화 즉 외부 요인으로 촉발된 교과서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 대두를 촉매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음성을 중시하는 교수법의 제안 및 대두가 그대로 교과서에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 [원문] 言語の取扱に關し、音聲言語を重視すべく指示してゐることは、国民學校教則の一特徴とされてゐるが、この音聲言語を重視すべきことについては、既に昭和十四年三月本府編纂の初等國語讀本卷一教師用に於て、その重視すべき理由を明らかにし、發聲法を示し、文章にアクセントを附してゐる。(中略)一般學習の基礎となる話シ方、聞キ方が、全學年を通じて行ふべく定められたことは、今回の教則の持つ一大特徴である。

13) [원문] 世の國語教育が内容主義に禍されてか、文章の指導、わけでも文法的指導がおろそかにされてゐるところである。この語法、たとえば助辭の學習が、とりわけ朝鮮人兒童にとつて困難であることは、かくれもない事實である。彼等の國語表現に—文字によるものにも、音聲によるものにも—語法上のあやまりの多いことは、思半にすぎるものがある。こゝに着眼して、『初等國語讀本』では、語法の指導をとり上げたのである。

4. 「창씨개명」과 교과서 등장인물의 이름 변경

교과서의 개정 및 수정은 앞서 언급한 학제상의 큰 변화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창씨개명」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도 깊이 관여한다.

시운의 진전과 더불어 내선 일체를 향한 발걸음은 빨리 진행되고 있다. 안에서의 요구에 밖에서의 원조가 더해지고, 위에서의 호소에 밑에서부터의 호응이 이어지는 식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정경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가운데 최근 위로부터 열린 제도상의 일대 시책은 뭐니 뭐니 해도 창씨개명이다. 말이 하나로 마음이 서로 무르익고 품모나 품격까지 닳게 되었는데 그 이름만이 여전히 민족의 다름을 생각해 하는 형식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려놓은 용에 찍어야 할 눈동자를 남기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어서 참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지난 건국기념일로부터 창씨개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여러 의미에서 서로의 환희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새로이 교과서를 편찬할 때는 물론이고 이미 간행된 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허구로 만든 인물의 이름은 그것을 모두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고치게끔 한 것이다¹⁴⁾(「教科書の仮作人物の氏名に就いて—創氏改名に因んだ修正—」 『教科書編輯彙報』 第6輯(1940.07);p67)

이러한 관점에서 예컨대 종래의 「英子」나 「貞子」 — 이 역시 일본식音讀이기는 하지만 — 와 같은 이름의 읽는 방식을 「英子」나 「貞子」와 같이 수정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5. 교과서의 가변 사항

14) [원문] 時運の進展と共に、内鮮一体への歩みは駿々と進められつゝある。内からの要求に外からの援助が加はり、上からの呼びかけに下からの呼応が相つぐといふ風で、海に麗しい情景といふべきである。

就中、最近、上から開かれた制度上の一大施設は、何といつても創氏改名のことである。言葉が一つに、気持が相熟し、風貌品格までが相似て来たのに、その氏名のみが、依然して民族の別を想はせるやうな型式を保存してゐるといふことは、如何にも描かれた竜に点すべき睛を取りのこしてゐるやうな気がしてならなかつた。それが去る紀元の佳節の日より創氏改名の機会を与へられたといふことは、あらゆる意味から、お互の歡喜に堪へない。

そこで、今後新たに教科書を編纂するに際してはもとより、既刊の分に対しても、そこに登場する仮作人物の氏名は、之を悉くこの際新しい制度に應じて改めることにしたのである。

한편 교과서의 내용 가운데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만 하는 사항이 있다. 예컨대 물건의 가격 등이 그것일 텐데 『教科書編輯彙報』에도 교육 현장으로부터의 그러한 요구를 적시한 부분이 있다.

독본에 관한 이야기 끝에 한 선생님이 2권의 『五カモノ』 가운데 연필과 학습장의 가격이 1전과 3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 2전과 4전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해 주셨다 15). (「国語読本教材中の可変事項について」 『教科書編輯彙報』 第1輯(1938.06);pp47-48)

이밖에도 「郵便小包の容積」, 「連絡船発着時間」 등도 현실을 반영할 것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러한 소위 가변사항은 교사 쪽에서 적당히 바꾸어서 취급해 주었으면 한다(かゝした所謂可変事項は教師の方で適宜あらためて取扱はれたいものである)」나 「교수자 쪽에서 적당히 사실에 맞추어 정정한 후 취급해 주었으면 한다(教授者の方で、適当に事実 に即して訂正の上取扱つていただきたいものである)」라 하여 현장 교사의 재량에 맡기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교과서의 수정 사항

11집에 이르는 『教科書編輯彙報』의 곳곳에는 교과서의 정오표 및 수정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데 내용상의 문제, 예컨대 본문에는 「一等道路」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国道」로, 「普通学校」를 「小学校」로 수정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 있는 한편 「克己」를 「克己」, 「すばらしい」를 「すばらしい」로 수정하는 명백한 오자를 바로잡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한 언어 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항도 있어서 아래에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한자사용상의 문제인데 『教科書編輯彙報』에서 한자의 사용에 있어서 정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5) [원문] 読本についてのお話の末、一人の先生が巻二の『五カモノ』の中の、エンピツやガクシウチョウの値段が一センとなり、三センとなつてみますが、あれはそれぞれ二銭と四銭に改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ね」と注意して下さった。

1938년도 발행 사용되는 「初等算術」, 『教科書編輯彙報』第1輯, p173-175				
卷	項	行	原文	訂正文
三年上	目録1	11	チョ金	貯金
"	" 2	15	オカシ	オ菓子
"	" 2	3	^{ツカ} 使イマス。	ツカイマス。
二年上	37	9	フタリ	二人
三	105	2	^{うつ} 映る	うつる

1938년도 인쇄 「初等算術」, 『教科書編輯彙報』第2輯, p209-210				
卷	項	行	原文	訂正文
二年下	目録1	15	シナモノ	シナ物
"	"	18	カイモノ	カイ物
"	16	14	一枚	一マイ
"	60	6	ナン本	何本

주지하는 바와 같이 메이지 시대 이후 일본에서의 한자 사용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전개되었다. 먼저 <한자 폐지론>이며, 다음으로 福沢諭吉(1835-1901)가 처음으로 주창한 <한자 제한론>, 마지막으로 <한자 존중론>이다. 이 가운데 결과적으로 채택된 것이 <한자 제한론>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한자의 제한은 1887년 문부성에서 펴낸 『尋常小学読本』에서 시도되는데 「자획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면서 그 쓰임새가 가장 넓은 것 대개 2천자(字画ノ余リ複雑ナラズシテ其用ノ最モ広キ者大凡二千字)」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1900년 문부성 시행규칙에서 1200자 정도의 한자가 제안되고 1921년 발족된 「臨時国語調査会」에서 「常用漢字表(1962字)」를 공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여러 경위를 거쳐 1946년 「当用漢字表」를 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이나 공용문에서조차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한자 제한론의 대두와 더불어 교육한자의 수준 설정 및 선정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教科書編輯彙報』에 위와 같은 정정 요구가 있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언가 방침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방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확보하

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으로는 띄어쓰기 문제를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는 띄어쓰기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오로지 일본어 교수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기교로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교과서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거의 일관되게 띄어쓰기를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923년 5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편 『普通学校国語読本』 卷3의 1과 「ニウガクシキ」를 살펴보기로 한다.

カネ ガ ナリマシタ。
私 ハ ハジメテ 二年生 ノ バシヨ ニ ナランデ、ウレシウ ゴザイマシタ。
ソレカラ、ニウガクシキ ガ アリマシタ。

위에서는 마지막 행의 「ソレカラ」와 같이 일견 과도하게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ナランデ」나 「ゴザイマシタ」와 같이 띄어쓰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택하지 않는 점이 특징적인데, 다만 활용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1937년 8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편 『普通学校国語読本』 卷4의 1과 「いなかのあき」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히라가나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히라가나와 가타카나가 어종에 따라서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으로 들 수 있겠다. 그리고 띄어쓰기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위 1923년도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¹⁶⁾.

高い ポプラ の 木 の 下 に、家 が 有ります。
やね に ひろげた とうがらし が まっか です。
へい の 上 に、ばく の つる が のび上 が っ て、まるい み が 三 つ な っ て います。

마지막으로 1939년 9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편 『初等国語読本』 卷2의 2과 「山ノ上」를 살펴본다.

16) 아래 인용문에서 「=」라고 하는 부호는 실제 당시 교과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지면 관계상 행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표식이다.

山ノ上カラハ、ムラモタンボモ一目ニミエマス。
ムラハズレノガッコウハ、ハコヲナラベタヨウデス。ウンドウバデ、アソ
ンデイルコドモハ、アリノヨウニ見エマス。

여기에서도 띄어쓰기 방식은 앞선 것과 대략 동일한데 다만 인용한 마지막 행에서 「ヨウニ」와 같은 형태가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教科書編輯彙報』에서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938년도 발행 사용되는 「初等算術」, 『教科書編輯彙報』第1輯, p173-175				
卷	項	行	原文	訂正文
二年上	10		デスカ。	デスカ。
"	23	12	ミマシヨウ。	ミマシヨウ。
"	68	2	コノヨウナ	코노요우나
"	78	3	ヨウナ	요우나

1938년도 인쇄 「初等算術」, 『教科書編輯彙報』第2輯, p209-210				
卷	項	行	原文	訂正文
二年下	14	14	オカシハ	오카시 하
"	"	15	イルデシヨウ	일 데시요우
"	62	5	何羽ズツ	하에우즈쯔

위 지적 사항들은 대개 조사 등 자립어를 띄어쓰기 하지 않은 점을 정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 가운데 「コノヨウナ」와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을 「코노요우나」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앞서 살펴본 1939년의 「ヨウニ」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일관된 방식으로 띄어쓰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때 앞서 한자의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총독부의 방침 등이 담겨있는 지침서 등을 찾아 낼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띄어쓰기에 관한 교과서 작성에 있어서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할만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이외에도 가나 표기법 및 送り仮名の 문제 등도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문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당시의 실제 교과서와 대조하면서 면밀하게 조사한 후 지면을 달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7. 마치며

본 논문에서는 1938년 조선총독부가 교과서 간행을 통한 교육의 개선 및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간한 『教科書編輯彙報』를 중심으로 당시의 언어 및 그 교육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교과서의 개정은 내선일체의 강화와 맞물려서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개정은 주로 국민학교령의 발표에 따른 학제의 개편이나 창씨개명과 같은 언어 외적인 요인 및 물건 가격의 변동 등 사회의 변화에 촉발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읽기 중심 교육에서 말하기 듣기 교육으로의 전환과 같은 교수 이론의 변화가 그대로 교과서의 개정에 담겨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教科書編輯彙報』에 보이는 교과서의 정오표 및 수정사항을 살펴본 결과, 먼저 한자사용에 있어서 조선총독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교육한자의 수준 및 가이드라인이 상정되기도 하고, 다음으로는 일본어 교수에 있어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띄어쓰기에 관한 지침도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며,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사용되던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을 통해 조선에서 행해진 일본의 국어정책과 패전 후 일본어의 재정립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밝혀 나가고자 한다.

【参考文献】

민병찬(2005) 「일본어 가타카나어의 표기사적 연구」 『일본문화학보』 24 집p.23-38
 박화리(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日本語常用政策」 『日本学報』 第58号.p.133-146
 박화리(2004) 「山口喜一郎の日本語教授法を中心に」 『日本学報』 第60号.p.83-96
 安藤正次(1942) 「日本語のむづかしさ」 『日本語』 第2卷 第3号. p.10

- 長志珠絵(1997)『近代日本と国語ナショナリズム』吉川弘文館, p.1-7
- 北川知子(2003)「朝鮮総督府編纂『普通学校国語読本』の研究」『植民地教育史研究年報』第6号, p.34-52
- 熊谷明泰(2004)『朝鮮総督府の「国語」政策資料』関西大学出版部, p.238-239
- 佐野通夫(1993)『近代日本の教育と朝鮮』社会評論社, p.14-66
- 多仁安代(1996)「第二次大戦期の「占領地」における日本語教授法について—「興亜院政務部」の調査報告をめぐって—」『日本語教育』90号, p.37-47
- 森田梧郎(1942)「朝鮮における国語教育」『国語文化講座第六巻-国語進出編』朝日新聞社刊, p.62-73

K C I

要 旨

本論文は、1938年朝鮮總督府が教科書の刊行による教育の改善や向上を図る目的をもって発刊した『教科書編輯彙報』を中心に、当時の言語およびその教育の展開過程について調べてみたものである。

当時の教科書の改訂は内鮮一体の強化と相俟って社会的にも高い関心の的であったようであるが、その改訂は主に国民学校令の発布にともなう学制の改編や創氏改名のような言語外の要因、そして物の値段の変動など社会的な変化に促された側面が強かったように見受けられる。ただし、その細部内容を見てみると、従来の読み方中心の教育から話し方や聞き方を重視する教育への転換のような、教授理論の変化がそのまま教科書の改訂に溶け込んでいるということも確認できた。

さらに、『教科書編輯彙報』に見られる教科書の正誤表や修正事項を調べてみた結果、まず、漢字の使用において朝鮮總督府が内々に設定した教育漢字の水準ないしガイドラインが想定されるだけでなく、日本語教授上の便宜を図って採り入れたはずの分かち書きに関する指針も存在していた可能性が伺われた。

なお、本論文は今後の研究の方向性を提案するところに主眼をおいた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最後に述べておきたい。今後、朝鮮總督府で発行した教科書のみならず日本で使われていた教科書をも具体的に比較検討することによって、朝鮮で行なわれた日本の国語政策と敗戦後の日本語の建て直しとがどういう関係にあるのかを追究していこうとしている。

キーワード：朝鮮總督府、『教科書編輯彙報』、教科書の改訂、漢字の使用、分かち書き、国語政策

투 고 : 2006. 5. 31
1차 심사 : 2006. 6. 10
2차 심사 : 2006. 7. 1

住 所 : (402-751)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일어일본학과
電 話 : 032-860-8061
E-mail : minbc@inha.ac.kr / hwaripark@hanmail.net